

contents

- 01 2026년 교구 실천사항
- 02 2026년 교구 실천사항 -이달의 실천사항 2p
- 03 소공동체 기도 3p
- 04 반모임 길잡이 4p
- 05 복음 말씀(마지막 주일) 5p
- 06 말씀 길잡이 6p
- 07 질문하는 신앙, 성찰하는 삶 8p
- 08 대안적 삶을 찾아서 10p
- 09 가톨릭 농민분회 이야기 12p
- 10 우리 생명 이야기 14p
- 11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 16p
- 12 건강한, 신앙생활 18p
- 13 교구 신앙의 역사 이야기 20p
- 14 소개합니다 - 교구역사관 22p
- 15 교구 소식 24p
- 부르심
- 17 사제의 단상 26p
- 18 신학교에서 온 편지 28p
- 19 그분과 함께 30p
- 20 알림 32p



'티움'은

개인과 공동체가 신앙과 사랑의 싹을 틔우고
열매 맺도록 도움을 주는 가까운 벗이 되고자 합니다.

펴낸곳 천주교안동교구사목국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막길 77
전화 054.858.3114
홈페이지 <http://www.acatholic.or.kr>

표지 글·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작가

2026년 실천사항

다가감
경 청
돌 봄

교 구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 돌봄가 양성 프로그램 실행
- 위기의 영혼 방문

본 당

하느님의 집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 '성령 안에서 대화' 방식 이용
- 취약 가정을 위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

사 제

동반자이자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

- 찾아가는 사목
- 아픔 경청

평 신 도

서로의 벗이 되기 위하여

- 먼저 다가감
-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작은 돌봄 실천

• 위 표를 참조하여 본당별로 실천사항을 설정하셔도 좋습니다.



다가감 · 경청 · 돌봄의 실천

1. 귀찮은 일 내가 먼저하기 _____

2. 한 번 더 웃어주기 _____



지구를 살리는 나의 실천

_____ 1. 불필요한 사진, 이메일 정리하기

_____ 2. 충동구매 줄이고 메모하여 장보기

■ 다가감, 경청, 돌봄의 실천과 지구를 살리는 나의 실천을 실천하신 후 체크하시면 됩니다.

“함께 걸으며 복음을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느님,
당신의 자비를 본받아
저희도 서로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소서.
무심함과 거리감을 넘어 마음을 열고
외로운 이들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게 하소서.

삶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신 예수님,
저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참된 경청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쁨에는 함께 웃고, 슬픔 앞에서는 곁을 지키는
진정한 벗이 되게 하소서.

새 힘을 일으키시는 성령님,
돌봄이 미치지 못해 어려움 속에 머무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어,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의 품으로 이끄는
참된 돌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관계의 회심을 살아 복음의 생명력을
새롭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복음 7단계

1단계 (기도)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관계의 회심을 위한 기도(3쪽)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2단계 (독서)

“어느 분이 복음 말씀(5쪽) 본문을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읽은 후)
“다른 분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묵상)

잠시 침묵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분)

4단계 (선포)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세 번씩 말합니다.

5단계 (나눔)

각자 ‘마음에 와 닿은 말씀’에 대한 생각과 체험을 나눕니다.

6단계 (활동과 실천)

1.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제안합니다.
2. 본당 소식 및 기타사항을 전달합니다.

7단계 (기도)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진행자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

■ 복음 말씀(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6-18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음 말씀에 대한 해석 - 말씀 길잡이(6쪽)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함원식 이사야 신부 / 농은수련원 원장

우리가 믿는 신은 삼위일체 하느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처음부터 삼위일체 신론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다양한 신 가운데 한 신만 섬기는 단일신론-신적 존재는 오직 하느님만 있는 유일신론-삼위일체 신론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다양한 신론을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발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삼위일체 신비를 묵상하며 해변을 거닐 때, 한 어린이가 모래사장에 작은 구멍이를 파고 그곳에 조개로 바닷물을 퍼 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연유를 물으니, 거기에 바닷물을 모두 담기 위해서라고 아이가 답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아느냐고 성인이 물으니, 아이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머리로만 이해하려는 것이 얼마나 더 어리석은 일인냐고 반문하며 천사로 변해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셋이 어떻게 각자가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완전하게 하나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삼위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 명백히 계시가 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으로 바로 이 일치의 신비 때문에 첫 번째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Filioque 논쟁이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갈

라놓은 것입니다. 서방교회는 성령의 이중 발출설(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온다)을, 동방교회는 성령의 단일 발출설(성부에게서 성자를 통하여 성령이 나온다)을 주장한 결과입니다.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 할 수밖에 없는 신비를 설명해 놓고는, 그 설명이 완전하다는 교만에 빠진 결과가 쌍방을 서로 이단으로 단죄한 교회의 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우리의 작은 머리에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사건이죠.

사실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딱딱한 철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느님을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릅니다(1요한 4,16).

사랑은 확장성과 일치성을 동시에 지닙니다. 즉, 사랑은 홀로 머물지 않고 너를, 우리를 원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확장하면서도 분열하지 않고 일치합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가정이 형성되는 이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사랑이기에 셋이고, 사랑이기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하느님의 이름은 사랑 하나면 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삼위일체가 여전히 핵심 교리인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의 초월성을 깨달아 인간의 자리에 겸손하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성장하는 신앙 - 수행하는 신앙

정희완 사도 요한 신부 / 가톨릭문화와 신학 연구소

구교우 집안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았고, 학창 시절에 잠깐의 냉담 기간도 있었지만, 뒤늦게 다시 회심(?)해서 사제가 되어 이 높은 나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그 시간만큼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졌는지 묻는다면 쉽게 답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앙인으로, 사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 사제로 살아온 그 시간의 거리만큼 내 신앙의 밀도도 깊어졌는지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 역시 주님께서 완성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은총과 선물로서의 신앙이 주어졌지만, 그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 신앙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적어도 이승의 삶 안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신앙은 살아내는 일이며 수행하는 일입니다. 모든 신앙인은 그 본성상 수도자이며 수행자입니다.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은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자리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수행한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만을 단순히 반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 여정에서 올바른 신앙적 신념을 키워 가는 일이며, 사람과 사건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세와 태도를 몸에 배게 하는 것이며,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성화(聖化)의 여정입니다. 신앙인은 성덕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길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숙한 신앙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더 주님을 닮아 가는 여정 속에서 형성됩니다. 주님을 닮아 가는 성화의 여정은 무슨 거창하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옆집의 성인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일상 안에서 성화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가정을 부양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남녀, 병자들, 한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노(老)수도자”(「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2항), 바로 그들이 옆집의 성인들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닮고 재현하는 신앙인들이 성화와 성덕의 본보기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영성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신앙인은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저마다 자기 길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주님을 닮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매머드 화석의 가격은?

변태석 요한 보스코 / 가은성당 성유 공소 회장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절,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으로부터 기후 위기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관장님이 강의 중에 수강생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 매머드 화석이 하나 있습니다. 2008년 개관할 무렵에 이 화석을 5억 원 남짓 주고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는데, 지금은 얼마쯤 할까요?” 강의를 들던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7억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8억 원이라고도 했습니다. 5억 원을 주고 구매한 지 10여 년이 지났으니,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7~8억 원 정도는 할 것이라고 가늠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정답은 5천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매머드 화석이 대량으로 출토되어 가격이 폭락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활동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이산화질소(N₂O) 등이 있습니다. 이 기체들이 지구 대기권에 막을 형성하여 지구의 열이 우주로 방출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햇빛에 의해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여 ‘온실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이 온실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산화탄소(CO₂)입니다.

이산화탄소(CO₂)는 유기물(탄소화합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기체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하는 석유, 석탄, 나무 등이 타면 발생하지요.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의 60% 정도가 화력발전소를 통해 만들어지니까, 전기를 만들 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 많은 공산품을 만들 때도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에너지나 물건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도 피부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온난화의 위기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2년 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우리 마을 과수원에 새로 심어 막 수확하기 시작한 사과나무 200여 그루 중 스무 그루 가까이 말라 죽은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사과 재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집중호우와 가뭄 등의 이상기후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입니다. 서서히 지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대안을 찾을 때까지 이 기후 위기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방법은 에너지와 물질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일회용품 안 쓰기 하나라도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울분회

가톨릭 농민회 사무국

한울분회는 화동공소 신자들이 대부분인 분회이다. 80년대 수세 폐지투쟁, 고추제값받기 등 외국농산물 수입반대 투쟁에 열심히 하였다. 이러한 투쟁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상주시농민회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90년 초부터 무농약사과와 유기포도 등 친환경 과수농사를 실천하였고 96년부터 회원들 공동으로 과일즙 가공공장(한울식품)을 운영하고 있다.

○ 기본 현황

구분	내용
위치	경북 상주시 화동면 일대
창립	1988년 창립
운영체계	세 번째 주 목요일 월례회
임원 및 회원	분회장 : 권오수, 총무 : 허균
	9가구 - Sr.이미혜 로사리아, 이순보 도미니코 최병수 요셉·김명희 도르테아, 권오수 이시돌·김순영 카타리나 허균 베네딕도·정재복 엘리사벳, 조용학 시몬·김갑남 릿다 한동섭·황정자, 이흥재 치릴로, 김기만 요한·이현정 레지나
주요품목	포도, 배, 사과, 샤인머스켓, 고추, 메벼, 오이 등
도·농결연현황	부산교구 울산무거성당(2001년), 남성동성당
분회 가공소	- 영농조합법인 한울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 최시영 • 품목 : 유기농 포도즙, 사과즙 등 - 느린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 김갑남 • 품목 : 유기농 발효생강, 요리생강 등

무농약·유기농과수 전문가 과정(2010년)



○ 주요활동

교구내 과수 생산지인 점곡분회에 친환경 과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기와 방법을 가르쳐주고 생육기에는 공동으로 산지점검 등을 하며 친환경 과수농사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전국 친환경 과수농가들의 연찬회도 주최하는 등 연구와 교류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현재는 기후변화로 과수 농사의 어려움이 커지고 회원수와 농사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매월 월례회 때 분회원이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가농 지향에 맞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 농사체계

90년대 초부터 친환경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포도재배특구로 지정되어 샤인머스켓과 캠벨포도를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생산, 우리농으로 출하 판매하고 있다. 특히 주스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산한 캠벨포도와 사과를 저온으로 착즙

하여 NFC 포도, 사과주스를 가공 생산하여 우리농을 비롯한 기타 생협등으로 판매하고 있다.



분회현장교육

지속 가능한 지구의 내일이 있게 하기 위한 길 33 - 핵발전소 없는 세상 만들기 8 -

김시영 베드로 신부
함창 본당 주임, 안동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2013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출판한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은 사회 교리에 입각하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전해 주면서 핵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근본 가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핵발전을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비핵의 반론을 소개하겠습니다.

1. 찬핵의 주장

① 핵발전은 안전한 발전 기술이다.

핵발전은 절대로 안전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값싼 에너지 생산방식이고, 핵반응은 설계와 건설 때에 자동 제어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핵사고가 일어날 수 없으며, 방호벽인 핵반응로 건물은 120c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건설되었기에 항공기와 충돌해도 견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소 제거 설비가 되어 있어서 수소 폭발도 막을 수 있고, 설령 수소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격납 건물이 튼튼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유출은 없을 것이고, 가압 경수로라서 전원이 차단되기에 노심 냉각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본과 같은 지진과 해일이 발생해도 안전할 것이며,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규모 6.5, 신규 핵발전소는 규모 7.0 지진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② 방사선은 위험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00msv(밀리시버트) 이하에서 방사선에 따른 암 발생 증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극미량의 방사선으로도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의심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중·저준위 방폐장 주변 방사선량은 규제치인 0.1mSv보다 낮은 0.01mSv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고, 핵발전소 작업 종사자가 1년 동안 받는 평균 방사선량은 약 1.2mSv이며, 자연 방사선 2.4mSv를 합쳐도 3.6mSv에 불과하기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방사선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을 제정해서 전 국토를 감시하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2. 비핵(재생 가능한 에너지 대안 포함)의 주장

① 핵발전은 가장 위험한 발전 방식이다.

미국, 구소련, 일본에서 발생한 대형 핵발전 사고는 이론과 기술 적용의 차이의 불완전, 설계와 건설의 불완전, 과학자와 운전자의 불완전, 자연재해 예측의 불완전, 안전 대책의 불완전, 사고 수습의 불완전뿐만 아니라, 기계 결합으로도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세 차례의 핵재앙은 작동오류(미국의 스리마일), 과학자의 실수(구소련의 체르노빌), 자연재해(일본의 후쿠시마)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재입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일곱 번의 핵사고가 났는데 사고 비율이 무려 7/429 이나 됩니다. 핵발전 사고는 그 피해 규모의 지속성, 사고 수습 등 모든 점에서 다른 사고와 비교 할 수가 없으며,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②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핵발전소 해체는 불가능하다.

사용후 핵연료는 발전소 안의 거대한 수조에서 최소 1년 이상 임시로 저장한 다음, 붕괴열이 조금 낮아지면 특수 용기에 담아 지상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수조가 포화 상태가 되면 새로운 핵연료를 넣을 수 없게 됩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더라도 대부분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되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인류는 아직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해체하여 영구적으로 폐기할 기술도 없고 갖게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핵발전소를 해체했더라도 그 해체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격리한 것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



예수님 당시의 라삐들은 제자들이 택하였고, 필요에 따라 여러 스승을 맞을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여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몸소 제자들을 택하여 함께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복음서의 기록대로하면 예수님이 열둘을 뽑아 사도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이 당신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어떤 이론적 가르침을 전수하기 위해 제자들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체험되고, 체험된 ‘하느님 나라’가 영원히 나타나고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사건을 통해서였다. 그래서 제자들한테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상’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 내용도 교리전달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만나야 할 ‘운명’이었으며 ‘삶의 친교’였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만남이라는 신비,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지음

마음을 다스려 병을 치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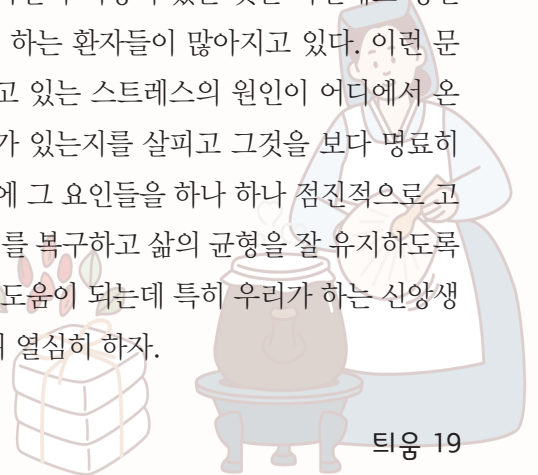
박인수 베네딕도 한의사 / 용상동 본당

한의학의 특징 중 하나는 마음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둘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되며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한다는 심신의학(Psychosomatic Medicine)이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같은 복잡한 마음의 상태는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질병을 신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환경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단 치료한다. 이 때문에 신체 부위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고 전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마음을 다스려 병을 치료한다는 생각은 허준의 동의보감 내경 신형편 ‘허심합도(虛心合道) 이도료병(以道療病)’에 잘 나와 있다. ‘허심합도’는 마음을 비워 자연의 도에 합치한다는 것이고, ‘이도료병’은 도로써 병을 치료한다는 뜻이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마음 다스리기’를 병 치료의 근본으로 삼아서 환자의 욕심과 잡념을 없애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면 마음이 점차 다스려져서 도를 깨우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병의 근본 원인이 해소되어 병이 낫게 된다는 뜻이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내용을 의역하자면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해야만 도에 의지할 수 있는데 병자로 하여금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생각들, 모든 상념과 모든 불평, 모든 차별을 다 없애고, 평소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깨달으면, 몸과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세계와 사물의 세계를 일치시킬 수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어 마침내 신(神)이 모이게 되

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성정이 화평하게 된다. 결국 세간의 모든 일이 공허하고, 종일토록 한 일이 모두 망상이며, 나의 몸이 모두 헛된 환영이고, 화복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며, 생사가 한낱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 한순간에 모든 것이 풀리게 되면 마음이 저절로 깨끗해지고 질병은 저절로 낮게 된다. 이러면 약을 먹기도 전에 질병은 사라진다. 이것을 도를 가지고 마음을 다스려 질병을 치료하는 제대로 된 방법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욕치기질 선치기심(欲治其疾 先治其心)’으로 병을 고치려면 먼저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에 가깝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는 세상은 삶이 다양해지고 점점 복잡해지면서 각박해지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신체에 특별히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데도 정신적으로 시름시름 앓거나 고통스럽다고 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환자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 건지 환자를 둘러싼 환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보다 명료히 하면서 성찰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이후에 그 요인들을 하나 하나 점진적으로 고치고 개선 시키면서 무너진 자율신경계를 복구하고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명상과 기수련, 심호흡법이 도움이 되는데 특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심신 치료에 아주 유익하고 좋으니 열심히 하자.



초대 교구장의 새로운 사목 구상(2)

신대원 요셉 신부 (안동교회사연구소장)

안동교구가 5개 지구로 나누고 지구 별 공동 사목을 진행한 것은 서로 가까운 이웃 본당끼리의 협조와 유대강화 및 지구 사목회를 통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목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공동 사목을 진행 함으로써 사목 활동에 있어서 편리하고 능률적인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안동-의성지구는 1980년 1월에 안동지구(목성동, 동부동, 태화동)와 의성지구(의성, 안계, 다인)로 나누었는데, 이러한 지구 별 공동 사목회와 공동 사목활동의 추진 등은 한국천주교회에서 안동교구가 처음으로 시행한 사목활동이었다.

아울러 안동교구는 교구설정 이후, 처음으로 1969년 12월 14일 안동 주교좌성당에서 두봉 주교의 집전으로 3명의 새 사제를 배출하였다. 서울 가톨릭대학을 졸업한 류강하 베드로, 최금복 마태오 그리고 광주 대건 신학대학을 졸업한 이정모 요셉 신부가 그들이었다. 이 3명의 새 사제들은 서품받은 이날, 류강하 신부는 의성본당 주임으로, 최금복 신부는 안동본당 보좌로, 이정모 신부는 점촌본당 보좌로 각각 발령을 받았다. 외국인 신부에 비해 방인(邦人) 사제가 월등히 부족했던 안동교구로서는 새 사제의 탄생으로 교구 사목에 더욱 활기를 떨 수 있게 되었다.

1970년 1월 1일 두봉 주교는 본당 사제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이길준 바오로(교구청), 배세영 마르첼리노(영주본당), 김욱태 레오(점촌본당), 정호경 루도비코(다인본당)으로 각기 전보발령하였으며, 동시에 교구내 모든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책임사제를 임명하고, 그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하였다. 지도 및 담당 신부는 다음과 같다. 구인덕 켈레스티노(구라사업), 송만협

(전례위원회 교구대표), 안덕화(레지오 마리아), 이길준(J.A.C 및 사회사업), 차기선(일치위원회 교구대표), 문세화(J.O.C), 최금복(학생회).

이렇게 본당 사제들과 제 단체 지도신부를 임명한 두봉 주교는 본격적으로 안동교구 사목 방향에 대하여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두봉 주교는 교구 총대리에 구인덕 신부, 교구 상서국장에 이길준 신부를 임명하면서 교구 내 안동, 서문동, 남성동, 예천, 함창, 봉화 영양 등 7개 본당에 대해서 사목 방문 및 교구 관할구역의 제반 사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시군 별 가구 및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각 본당 회장 연수회, 전교 회장 연수회, 복사단 연수회, 사제-수도자 연석 총회 등을 개최하여 교구 사목활동의 짜임새를 공고히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한편 1969년 12월에는 1970년의 사목 방향을 제시하는 사목 교서를 교구 사제들에게 발표하였는데, 사목 교서의 주된 내용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의 결정 사안들이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폐막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결정문들을 일선 사목활동에 반영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새로운 사목 구상이었다.

두봉 주교는 1969년 9월 2일 자로 1969년도 사업 계획 및 경과보고를 발송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7개의 본당 방문과 2차례에 걸친 주교회의였는데, 주교회의의 1차 회합은 광주 대신학교 문제이고, 2차 회합은 시노드를 위한 준비 모임이었다. 특히 각 본당 순회 활동 및 사제, 수도자, 평신도 대표에게 발송한 몇 가지 설문에 관하여 교구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 연수회는 교구 내의 사목활동에 관해서는 수녀 회합을, 평신도 대표 회합에서는 평신도들의 위상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사제회합에서는 교구의 제반 문제를 연구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세미나를 마쳤다.

성모성월

(가로 11cm*세로 17.5cm, 1934)

성모성월은 중국에서 활동한 예수회 수사 이탁 李鐸이 신자들이 성모마리아를 공경하고 선행을 통해 덕행을 닦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1857년 저술한 성모 신심서이다. 이 책은 제6대 교구장 리텔 주교가 1877년 조선에 재입국하면서 가지고 온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로베르(김보록) 신부가 한문본을 한글로 번역하여 1887년 처음 발간한 이후 여러번 중간되었다. 서문과 차례,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문에는 5월 성모성월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32일 분량의 묵상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현대 인쇄술이 도입된 뒤 발간되어 기존 한지를 사용한 목판 인쇄에서 벗어나 갱지에 인쇄되었으며 크기를 작게 하고 쪽빛으로 염색한 천을 씌워 실용성과 디자인감을 살리고 있다.



교구 소식들

■ 구역장반장연수-북부지구



■ 구역장반장연수-동해지구



■ 성유축성미사 및 정희옥 신부님 사제서품 50주년



부르심



“제의에 핀 곰팡이가 건넌 예수님의 향기”

정철환 타대오 신부
남성동 본당 주임

“묵혀둔 제의에서 찾은 초심”

특수 사목 10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본당에 온 지 어느덧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이삿짐 속에 깊이 넣어두었던 제의와 수단을 꺼내어 펼친 날, 한동안 멈춰 멎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을 일이 없어 정성스레 넣어두었던 옷감 위로 하얗게 핀 곰팡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문득 이 제의를 처음 입었던 서품 날이 떠올랐습니다. 교우분들의 정성 어린 기도도와 착한 목자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봉헌이었지요. 그 귀한 마음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둔 것은 아닌지, 죄송함이 밀려와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곧 새로운 불씨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곳 “남성동 본당”에서 더 뜨겁고 충실하게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단단한 다짐이 되어주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는 일터, 그리고 주어진 내 삶의 현장”

하지만 다짐과는 달리, 본당 사목의 리듬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주말과 공휴일의 쉼이 보장되었던 특수 사목 시절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으니까요. 본당 신부에게 성당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24시간 깨어 있어야 하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미사, 강론 준비부터 본당의 살림살이까지 하나하나 직접 살펴야 하는 일상 속

에서 때로는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웠습니다. 퇴근 없는 삶에 몸은 조금 고단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길은 이미 수많은 선후배 신부님들이 묵묵히, 그리고 기쁘게 걸어오신 길이었습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려 했던 제 모습 반성하며, 비로소 ‘한 명의 직장인’이 아닌 ‘함께 사는 목자’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숨 쉬며, 찾아가는 사제의 길”

직접 발로 뛰고 손으로 만지며 챙겨야 하는 본당의 일들은, 한편으론 저에게 큰 활력이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작은 것도 저의 손을 거쳐야 하기에 교우분들의 삶을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었고, 사소한 일 하나에서도 살아있는 경험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미사에서 마주하는 교우분들의 눈빛, 그 따뜻한 만남 안에서 제가 누구인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제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완성해 가는 소중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든, 어떤 소임을 맡든 사제는 오직 주님의 도구로서 그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곰팡이 핀 옛 제의 대신 사랑이 깃든 새 제의를 입고 신자들과 함께 저의 서품 성구처럼 “그리스도의 향기”(2코린 2,15)를 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성구(聖句)

김병욱 가브리엘
학부4, 용상동 본당

찬미 예수님! 학부의 끝자락,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병욱 가브리엘 신학생입니다. 생명이 새롭게 움트는 봄도, 어느덧 5월을 맞아 선연한 푸르름으로 물드는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아직 피어나는 꽃내음을 간직한 3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3월의 대신학원은 축복과 기도 속에 신입생들을 맞이하며 입학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번 입학 미사는 안동교구 교구장이신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주교님께서서는 강론 중 자신의 ‘사제 수품 성구’를 소개하시며, 신학생들에게도 ‘나의 성구(聖句)’를 가져보는 것을 권해주셨습니다. 주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도 ‘나의 성구’를 여러분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22편은 그 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다.”(시편 22,32)

이 짧은 고백의 말마디가 저의 오늘을 비추어 주고 이끌어주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구로 정한 것은, 제가 아직 신입생이던 학부 1학년 때였습니다. 수업 중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위 마지막 외침과 시편 22편 2절의 말씀을 함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다.”(시편 22,32)



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마태 27,46; 마르 15,34)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시편 22편의 직접 인용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안에서 그 모든 일이 하느님께서 모든 세대를 향한 구원의 영광을 위해 마련하신 것이라는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 안에서, 겉으로 버려진 듯한 순간에도 하느님께서서는 계속해서 구원으로 이끌고 계셨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소의 여정은 언제나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주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것을 가까이 짊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 길은 고난의 길이며, 홀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겠지요. 어찌면 그 길 위에서, 저는 또 부르짖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왜 저를 도와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께서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이 길의 끝에서, 겸허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2026년 예비신학생 개강미사

3월 15일(주일) 교구청에서 교구장 주교님 주례로 예비신학생 개강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신학생들과 예비신학생들, 부모님, 본당 성소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성소의 꿈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6년 한해 예신생들이 힘차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림

알림

1. 예비신학생 5월 모임

일 자 : 5월 17일(주일)

장 소 : 봉화 이재구 농장

2. 대신학생 부모 모임

일 자 : 5월 30일(토) - 31일(주일)

장 소 : 농은수련원

3. 2026년 예비신학생 등록 신청

대 상 : 사제 성소를 희망하는 중고등부 남학생, 대학생과 청년

방 법 : 등록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 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공문을 통해 안내 확인.

※ 등록카드 다운 방법

안동교구 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 - 안동교구예비신학생등록카드

4. 성소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안동교구 각 본당 매월 마지막 주일 교중미사

매주 수요일 교구청 미사

성소후원 회비 납부 현황

2026년 3월 1일 ~ 3월 31일까지 납부하신 내용입니다.

정성껏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내 본당		권양일	10,000	정경자	40,000	김지은	20,000
가 은	734,000	김건화	10,000	정재식	50,000	나양수	60,000
계 림 동	641,000	김경란	10,000	정태진	20,000	박영신	20,000
모 전 동	1,532,000	김경란	10,000	조기섭	20,000	백형숙	20,000
목 성 동	2,189,000	김경림	10,000	조원준	10,000	변우경	10,000
문 경	532,000	김경수	50,000	최경희	20,000	송 경	20,000
안 계	1,820,000	김근희	5,000	탁인자	30,000	신미란	20,000
울 진	1,090,000	김길자	50,000	황상호	40,000	양수모	20,000
의 성	3,302,000	김정은	20,000			이길선	20,000
합 창	549,000	김현정	20,000	월 모 입 편		이영섭	40,000
후 포	541,000	김혜경	10,000	강면식	20,000	전정희	25,000
		김혜자	100,000	김명숙	120,000	정옥남	20,000
교구 내 기타		박승철	10,000	김애숙	100,000	최은정	20,000
김정현 신부	10,000	박종대	10,000	설영숙	10,000	최인숙	20,000
백동수 신부	10,000	변진의	10,000	심재임	20,000	현희성	20,000
서동호 신부	20,000	서효식	30,000	엄혜선	100,000	황재혜	10,000
안영배 신부	10,000	송은옥	10,000	유근영	300,000		
윤성규 신부	20,000	신옥선	10,000	윤동진	120,000	성 분 도 치 과	
정양모 신부	50,000	신용찬	50,000	이순연	20,000	100,000	
정철환 신부	10,000	안명숙	20,000	임수애	240,000		
김정란	30,000	안안택	10,000	주신혜	120,000	안 동 신 협	
박보라	10,000	위은숙	10,000	최금주	50,000	100,000	
박정렬	10,000	유병현	10,000	최현자	120,000		
서영림	10,000	이귀호	10,000	호원순	100,000	은 총 의 거 울 Pr	
신동섭	20,000	이임영	30,000	황순자	120,000	25,000	
이가엘	10,000	이정숙	20,000				
이준철	50,000	이춘근	5,000	이 길 선 편		정의의 거울 Pr	
		이호숙	10,000	강명희	10,000	20,000	
타교구 개인		장준영	10,000	권순옥	20,000		
강윤순	5,000	장희익	40,000	김중향	10,000		

입금계좌안내 - 예금주 : 천주교안동교구 * 입금자명을 꼭 적어주세요!!

(농협) 733-01-254416 (기업) 160-000175-04-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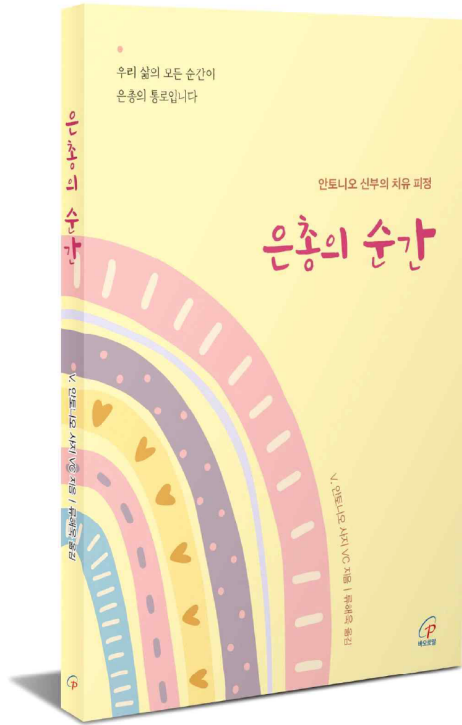
(신협) 09035-12-001948 (신한) 140-005-570052

(우체국) 703439-01-004207 (지로) 7519989

* 기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054-858-3114-5번으로 연락해주세요.

은총의 순간

V. 안토니오 사지 VC | 류해욱 | 184쪽 | 12,000원



“하느님 말씀으로 자유로워지고 변화되려면 먼저 깊은 물에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을 발견하며
삶의 모든 순간이 은총의 통로임을 일깨우는 18편의 침묵 치유 피정 강론 모음

바로로떨은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녀들이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전화 054-859-6040 / 목성동 주교좌 성당 입구